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2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음 2월 17일)

제20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청년시책 농업서 길 찾다

전북도, 청년 창업농 육성 맞춤형 정착 지원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청년창업 보육센터 건립·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연계

전북도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청년 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83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

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송하진 도지사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면담시 중점 건의한 '2018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전라북도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청년창업농을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타 지역보다 월등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김진성 기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팜 청년창업을 위한 입문교육과 교육형 경영형 실습 및 현장지도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창농을 지원하게 된다.

참여 교육생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경영형 실습농장(600평규모/1팀(3명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 보육사업 선정기관(지역) 중심으로 향후 신규 추진하는 '청년창업 보육센터 건립' 및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급속히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논리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청년창업농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와 도시혁신센터가 지난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마을에 활기를... 구도심 주민들 '한마음'

동서학동 등 9개 동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

주거지 쇠퇴 등 문제 해결 주민들이 직접 발전계획 수립
 원도심 활성화·아시아 문화심장터 완성도 향상 기대

전주시가 공동체를 회복시켜 침체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청년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구도심 100만 평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인다.

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는 지난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동서학동과 완산동, 풍남동, 노송동 등 원도심 9개동 마을계획추진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주거지 쇠퇴 등의 문제를 겪어온 전주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구도심 전역이 각각의 특성과 마을 자원들을 가꾸고 보존해 아시아 문화심장

터의 핵심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행사는 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오며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추진단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참여 주민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는 각 동 마을계획추진단에 위촉장을 수여, 마을계획추진단 깃발 만들기 워크숍도 진행했다.

올해 사업공모와 전주시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금암동, 덕진동과 동서학동 등 3개 동을 마을계획수립동으로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마을계획을 수립한 동 중 중앙동과 풍남동, 완산동, 인후2동, 노송동과 진북동 등 6개 동을 마을계획실행동으로 각각 선정했다.

사업 대상 마을계획추진단은 총 1

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계획사업에 동참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로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조사, 마을의제 발굴 및 연구, 주민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계획 수립 완료 등은 다음해 실행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수립한 마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양 기관은 주민들이 마을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교육 준비 △프로젝트 매니저 및 활동가 지원 △마을조사 결과 분석 △마을의제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가는 사업이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는 뜻깊은 일"이라며 "주민들이 주도해 원도심 지역 사회경제와 도시재생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일에 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아이들을 위한 예술놀이터, 팔복예술공장에 세운다

전주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센터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비 10억원 투입

전주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놀이터로 조성된 전주산업단지 내 팔복예술공장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산업단지 내 폐공장 부지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예술놀이터로 탈바꿈되며 이어 전주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품격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면서 문화의 힘을 토대로 시민들의 삶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 플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사용되지 않는 폐교 또는 폐공장을 재활용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관광체육부의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공모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획·운영과 콘텐츠 개발, 교육장비 구입, 시설 재단장 등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최근 공식 개관한 팔복예술공장 중 2단지에 문화예술교육센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간조성이 완료되면 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등 시민들을 위한 예술 창작과 놀이 중심의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팔복예술공장에 입주한 상주 예술가와 함께하는 팔복 AB(Art-Beebl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평소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구도심 내 팔복초등학교 전교생들은 이곳에서 '학교 밖 창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9일까지 전국 가축시장 임시 폐쇄

농협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을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전국 86개(전북 9개) 가축시장이 임시 폐쇄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 폐쇄는 지난 27일 정부의 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조치로 임시 폐쇄기간은 추후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 이사는 "정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소독·예찰활동 강화, 차단방역 철저히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매일 INDEX

2면 -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긍정 55% 3면 - '우병우 소환법' 국회 통과 6면 - 한은, 16년만에 최대 순익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